

**Date:** 12 Iyar 5786 (April 29, 2026)

**Torah Portion:** Emor

**Topic:** 태양 위와 아래, 제 1 부

예호와와의 오순절까지 계수하는 오메르(Omer)의 계명은 미드라시(Midrash)가 시작할 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으로 우리를 되돌려 보냅니다. “사람이 태양 아래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노동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언뜻 보기에 이 질문은 인간 노력의 전체 구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듯합니다. 만약 모든 노동이 자연 세계라는 폐쇄된 체계 안에 갇혀 있어—쇠퇴와 한계, 그리고 결국에는 소멸이라는 운명에 종속된다면—아무리 위대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유익을 낳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현인들이 가졌던 우려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심지어 인간의 가장 고귀한 형태의 노력마저도 무의미한 것으로 격하시킨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인들의 최종 결론은, 코헬렛(전도서; Kohelet)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땀 흘리며 수고함으로 회복과 상승에 도달하는 그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곳에 힘을 쏟아 버리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진단임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태양 아래서의 노동”입니다. 미드라시가 강조하듯이, 이 성경 구절은 모든 노력을 무차별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주의 노력—즉 자연의 질서 안에 갇혀 오직 현세적인 목적만을 향해 나아가는 노동—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은 겉보기에 아무리 생산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작동하는 체계의 경계를 결코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고는 인간이라는 영혼을 고양시키기보다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육신의 순환적인 일상의 성격을 띠며, “생존”을 유지시켜 줄지는 몰라도 “삶”으로는 변혁시키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라쉬의 통찰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이트론”(יֵטְרוֹן 히브리어: 유익; yitron)이란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즉 상실과 변화의 풍파 속에서도 곳곳이 존속하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때, 코헬렛의 질문은 노동이 당장의 결과물을 낳느냐 마느냐의 요점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과연 영속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 물질적 소유, 사회적 지위, 심지어 지적 성취라 할지라도—그것들이 오직 개인과 그의 현세적인 삶에만 묶여 있는 한—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태양 아래”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그 영역이 지닌 한계를 고스란히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여기서 논의를 멈추지 않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과 “해 위”에 있는 것 사이의 구분을 도입함으로써, 이는 겉보기에 허무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이해의 길을 열어줍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본질적으로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수한 노동이 그보다 더 높은 영적 차원의 지향해야 될 목적의식에서 단절될 때 비로소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즉, 여호와(YHWH)의 뜻—와 조화를 이룰 때, 노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세상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노력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 무엇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메르(Omer)' 봉헌의 계명(미츠바)은 이러한 상승적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농부의 노동은 모든 면에서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고된 수고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노력, 휴과의 교감, 그리고 성장과 수확이라는 자연의 순환 주기에 대한 의존이 수반됩니다. 만약 이러한 노동이 그 자체로만 방치된다면, 그것은 '코헬렛(전도서 저자)'이 묘사했던 그 닫힌 물리적 체제의 한계안에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가르침;법)는 바로 그 노동 과정의 시작 단계에 개입하여, 첫 수확물을 제사장(코헨)에게 가져와 봉헌하도록 명합니다. 이 행위는 노동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는 행위입니다. '레시트(Reshit)'—즉, 가장 먼저 얻은 가장 중요한 몫—를 여호와께 봉헌함으로써, 농부는 자신의 노동이 스스로 시작된 것도 아니며,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겸허히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노동은 신성한 하늘 위에서 주어졌고, 인도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수고의 결실은 다시 위로 되돌려지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를 통해 수확물 전체의 의미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산물이라 여겨졌던 수확물이, 이제는 더 큰 차원의 '신성한섭리(divine economy)'의 일부로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노동 그 자체가 한 차원 승화되는 것인데, 이는 노동의 물리적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노동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노동은 더 이상 단순히 "해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거룩하신 분과 연결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밀 단을 올려드리는 오메르 봉헌은 물질적인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고의 땀 흘림들을 영생의 빛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베이트 하레비(Beis HaLevi)'가 그 가르침을 전도했듯이, 토라 연구의 영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운동력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토라가 그 본질상 전적으로 "해 위"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이트 하레비는 탈무드의 주석서인 '게마라(Gemara)'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매우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즉, 토라의 위상과 가치는 오직 그 내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연구하고 마주하는 사람의 '의도(intention)'에 의해서도 함께 어우러지며 "오늘" 가운데 상호 인과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며 탐구할 때—그 공부하는 열심의 중심에 명예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경쟁, 혹은 물질적 이득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다면—그 공부는 '해 아래' 이루어지는 노동의 특정한 성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하지 않은 의도에 뿌리 한 열심은 일상적인 활동들을 지배하는 것과 동일한, 자기 지향적 노력이라는 물리 체계적 한계 속으로 다시 편입되어 버립니다

### 살롬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삿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 A Daily Bread

בייה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 10:10-18).